

믿 정 실	음 진 천
-------------	-------------

# BUDDHANARA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범등 법회  
 -법회장소가 확보될때까지 지역 범등 법회는 쉽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범구경: - 평화로운 생각을 즐기는 사람,  
 욕정의 슬픔을 아는 사람,  
 생의 광명을 기억하는 사람,  
 모든 갈망을 떠나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네.

But he who enjoys peaceful thoughts, who considers the sorrows of pleasure, and who ever remembers the light of his life – he will see the end of his cravings, he will break the chains of death.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4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 깨달음은 대자유이며 온전한 만족이다”

궁극의 진리 깨닫고자하는 발심 있어야 문 열려; 진리에 대한 믿음과 끝까지 가겠다는 근성 절실

깨달음은 다만 깨달음이고, 달리 입을 열거나 생각을 움직일 것이 없다.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하다. 깨달음은 언제나 다른 것이 없다. 생각하고 말하면 분열이 일어나므로, 깨달음은 생각과 말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아상(我相)도 없고 인상(人相)도 없고 법상(法相)도 없고 비법상(非法相)도 없다.

보는 곳에 깨달음이 있지만 깨달음은 보이지 않고, 듣는 곳에 깨달음이 있지만 깨달음은 들리지 않고, 생각하는 곳에 깨달음이 있지만 깨달음은 생각되지 않고, 알거나 모르는 곳에 깨달음이 있지만 깨달음은 알거나 모르는 대상이 아니고, 손을 움직이는 곳에 깨달음이 있지만 깨달음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결코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언제 어디에 어떻게 깨달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깨달음은 말로써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직접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허공이 스스로를 확인하지 못하면, 허공 속에 떠 있는 사물을 인연하여 자신을 유추하는 전도된 꼴이 되어 버린다. 사물이 허공에 의지하여 있건만, 허공 스스로가 도리어 사물에 의존하여 자신을 찾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접 깨달음을 확인하지 않고, 말 속에서 찾거나 감각적 심리적 경계를 통하여 찾아 보아야 소용 없는 일이다. 말의 허망한 모습으로는 진실한 깨달음을 바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나 말이 깨달음을 벗어나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말로써 깨달음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화두(話頭)이고, 화두를 통하여 깨달음을 바로 맛볼 수 있다.

깨달음은 어떤 육체적 상태가 아니다. 깨달음은 어떤 감각적 경험이 아니다. 깨달음은 어떤 견해가 아니다. 깨달음은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다. 깨달음은 어떤 물건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경계들이 깨달음을 벗어나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이 이러한 경계에 속하지는 않는다.

깨달음이 경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깨달음이 공허한 관념이거나 신비스런 비밀은 아니다. 깨달음은 의심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이 확연하고 자명하여, 어떤 관념적 해석이나 견해나 이유가 붙을 수 없다. 깨달음을 공허한 관념이나 신비한 비밀이라고 주장한다면, 스스로가 오온(五蘊).육식(六識)의 경계를 공허하지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은 실재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스스로 경계에 머물러 있는 전도중생이 어찌 경계를 해탈한 깨달음을 알겠는가?

깨달음은 자유이다. 경계의 장애와 구속을 받지 않는다. 육체 속에서 자유로우며, 느낌 속에서 자유로우며, 감정 속에서 자유로우며, 생각 속에서 자유로우며, 분별 속에서 자유롭다. 깨달음에 있지 못하면 경계에 의존해야 한다. 깨달음에 있지 못하면, 육체에 의존하거나, 지식에 의존하거나, 생각에 의존하거나, 느낌에 의존하거나, 감정에 의존하거나, 돈.명예.사람.물질에 머물러 의존하여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 그러나 머물러 의존하므로 구속되어 벗어나지 못한다.

깨달음은 완전한 만족이다. 깨달음에 있지 못하면 누구나 생각의 굴레, 감정의 굴레, 욕망의 굴레에 묶여서 생각.감정.욕망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늘 갈망한다. 범부는 이처럼 경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가지는 이중의 모순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더욱더 경계에 중독되기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계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본능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모순된 상황이 바로 번뇌이다. 깨닫게 되면 이런 이중의 모순된 상황이 사라지고, 언제나 들이 아니어서 갈등이 없는 한결같음이 있고, 불만족이 없다.

깨달음은 완전한 안정이다. 깨달음에 있지 못하면 경계에 의존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상(無常)하게 변화하는 허망한 경계에 의존해 있으면, 확고한 자리가 없으므로 늘 흔들리고, 불투명하고, 불명확하고, 불안하다. 깨달음에는 의존하는 사람도 없고, 의존의 대상도 없어서 불안이 없다. 깨달음에 있지 못하면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의존의 대상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분열과 의존 상태가 바로 불안이다. 그러므로 분열과 의존의 상태에 있는 범부는 더욱 믿을 만한 의존의 대상을 찾아서, 그리고 더욱 견고한 의존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그러나 깨달음에서는 분열이 없으므로 불안도 집착도 없다.

깨달음의 경험은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을 통하여 일어난다. 선지식이 설법이나 행동을 통하여 학인에게 마음을 바로 가리켜 주면, 학인은 견성하여 깨닫는 것이다. 스승이 마음을 바로 가리키고

제자가 견성하는 까닭은, 사람의 마음은 차별 없는 허공처럼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 본래성불(本來成佛)이라고 한다. 본래성불이지만 까닭 없이 망상을 일으켜 스스로 헛것을 진실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전도중생이다. 그러므로 진실을 알고자 발심한 학인은 선지식을 찾아서 묻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삶이 본래자리에 있지 못한 것 같고 불안하고 부조리하고 불만족하면 이 부조리와 불만족을 벗어날 길을 찾게 되는데, 이때 발심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그 발심이 진실로 무엇에 대한 발심이나 하는 것이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발심인가?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발심인가? 무언가 중요한 일에 가담한다는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발심인가? 육체의 건강을 위한 발심인가? 의심할 수 없는 궁극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발심인가? 결국 발심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마련이므로, 궁극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 분명해야 한다. 두드리는 문이 열리는 것이고, 구하는 물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발심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내면의 과정을 설명해 본다면, 분별심에 딛고 있던 발을 반야로 옮겨서 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별심에 익숙해 있던 의식이 반야에 친숙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의식 위에서 의도적 노력과 판단에 의하여 쉽사리 일어나는 단순한 일이 아니고 내면 깊숙이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의식적 탐구와 노력에만 의지해서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의식적 관심과 탐구로 공부를 시작하지만, 이윽고 의식적으로는 어떠한 출구도 찾을 수 없는 진퇴양난의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이 난관에 처하여 물러나지 않고 출구를 찾아서 있는 힘을 다하여 발버둥을 치다 보면, 어느새 어떤 의식적 도구와 방법도 쓸모가 없어져서 자신의 모든 손을 놓고 스승에만 의존하는 거의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데, 바로 이때 문득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난다. 갑자기 캄캄한 곳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나며 출구가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두려움과 갑갑함이 눈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떠나지 않던 의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평화와 안정이 있으며, 즐거움과 환희가 나오며, 깊은 안도감이 찾아온다. 이제 반야에 발을 딛은 것이다.

그런 뒤에 조사의 어둠을 보거나 경전을 보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친근감으로 다가오며, 이전에는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보던 문구들이 문득문득 거부감 없이 소화된다. 그렇지만 아직은 반야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불만감이 있고, 때때로 경계에 꼬달림을 감지할 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미숙함이 있다. 그리하여 선지식을 찾아 혹은 도반들과 탁마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보림을 하다 보면, 어느날 갑자기 공부니 진리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이 손아귀에서 사라져 버리고 언제나 다만 다른 물건이 없게 된다. 우주 전체가 한 점으로 줄어들더니 문득 사라져 버렸는데, 그 뒤에는 이전 우주 그대로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나 할까.

그러므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궁극적 깨달음까지 가겠다는 발심과 진리와 스승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와 손발을 쓸 수 없는 진퇴양난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 다른 피난처를 찾지 않는 끈기와 끝까지 가고야 마는 근성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깨달음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여우같은 의심과 은산철벽 앞에서 현묘한 이치 속으로 피난해 버리는 나약함과 겨우 하나의 실마리를 잡고서 모든 것을 얻은 양 기고만장하는 아만(我慢)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김태완

---

## 불자가 준비할 노후대책

부처님이 왕사성 비다라산의 칠엽옥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해질녘 부처님은 하루 종일 서있는 고행을 닦는 니간타 외도들의 처소로 가서 ‘그대들은 왜 앉지 않고 서있는가?’를 물었다.

“우리 스승이 가르치기를 전생에 지은 죄가 있으면 앉지 말고 서있는 고행을 해야 죄가 멀하고 행복을 성취할 것이라고 해서입니다.”

“그대의 스승은 과거에도 그 같은 고행을 했을 터인데 지금도 고행을 하는 것은 아직도 죄업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고행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행복은 고행에서 비롯됩니다. 고행을 하면 그 공덕으로 죄가 멀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져서 빔비사라왕처럼 됩니다. 이에 비하면 부처님의 행복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빔비사라왕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 내가 묻겠다. 빔비사라왕은 말없이 침묵할 수 있는가. 침묵의 시간으로 7 일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 쾌락과 환희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 단 하루라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외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에 부처님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어떤가. 나는 하루 동안 말없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 7 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침묵으로 보내면서도 그 가운데서 즐거움은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가?”

외도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부처님은 ‘그렇다면 누구의 행복이 더 참다운 행복인가?’를 물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행복이 참다운 행복’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그렇다.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피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앗지 않고 서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한다.”

-중아함 25 권 100 경 <고음경(苦陰經)> -

예로부터 장수(壽) 재산(富) 건강(康寧) 존경(攸好德) 편안한 죽음(考終命)은 오복으로 꼽혔다. 하지만 노년인생이 길어지면서 행복의 조건도 많이 달라졌다. 요즘은 신오복(新五福)이라 하여 경제, 건강, 배우자, 친구, 일 등을 꼽는다. 이 중 과거에 없던 것은 배우자와 친구, 그리고 일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자식’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자식보다 친구와 일을 거론한 것은 현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말해준다.

어쨌거나 사람이 늙어서도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그것도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최상급일 것이다. 그러나 일의 유무가 반드시 노년행복을 좌우하는 절대조건은 아니다. 일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 불만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급하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처방은 ‘욕심을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무리 신오복을 다 구족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혈떡거림이 남아있다면 인생은 피로울 수밖에 없다. 참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자 한다면 선가에서 말하는 ‘일없는 한가한 도인(無事閑道人)’이 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것이 잘 안된다면 혼자 있을 때 집착 없이 할 수 있는 일거리들 미리미리 찾아두는 것도 차선의 방법일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노년의 외로움을 생각한다면 마음 다스리기를 연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후대책이 아닐는지. 경전을 읽다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어 해보는 말이다.

## 출가는 현실도피인가

“출가는 인도사회의 관행...정신가치의 상징”, 초기교단의 이원구조서 나온 제도, 깊은 곳에 은둔하라는 가르침 없어

초기불교의 교단은 가정과 직업을 떠나는 출세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또 출가자들의 소유는 수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로 제한되었다. 식생활은 하루 한 끼로 결식에 의존하였고, 결식에 필요한 한 개의 발우와 몸을 가리는 데 필요한 세 벌의 누더기 옷이 소유물의 전부였다. 출가자들은 구족계(具足戒)를 지켜야 했고, 분소의(糞掃衣)와 결식(乞食)과 수하주(樹下住)와 진기약(陳棄藥)에 의지해야 하는 이른바 ‘사의지(四依止)’의 법에 따라 살아야 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직업과 일체의 생산노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한 마디로 수행자들은 ‘현실의 삶’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출가 교단의 존재방식 및 생활방식은 불교를 현실도피의 종교로, 또는 ‘자아의 철저한 해체와 세계의

완전한 지멸'을 지향하는 종교로, 그리하여 '사회적 실천'과는 무관한 종교로 인식되게 하는 데,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 출가 교단의 성격과 기능을 이런 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예를 들어, 출가자들이 가정과 직업을 떠나 생산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걸모습만을 보고, 불교를 현실도피의 종교라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부처님이 출가자들에게 생산노동을 금한 이유를 잘 살펴보면 출가 교단의 실제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출가자에게 생산노동이 금지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것은 부처님이 당시 인도사회의 관행이자 종교문화적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은 출가수행자로 하여금 모든 세속적 생활방식에서 떠나 수행에 전념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수행의 상징과 이미지는 일반 대중에게 정신적 가치와 성스러움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그들의 일상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한 차원 더 높이 승화시켜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의 수행을 얼마나 중시하였나 하는 것은 다비 후에 수습한 부처님의 사리를, 제자들이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출가제자들이 아닌 재가신자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유언하셨던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셋째, 그것은 초기불교교단의 이원구조의 특성 때문에 가능했다. 교단의 이원구조는 <이티붓타카> 107의 “재가자와 출가자는 서로 의지해서 올바른 진리와 위없는 안락에 도달한다. 출가자는 재가자로부터 옷과 생활필수품과 침구, 약품을 얻는다. 또한 재가자는 깨달음에 도달한 성자들의 성스러운 지혜의 힘에 의해 이 세상에서 법을 실행하며 하늘의 세계를 누리고 바라는 것을 얻어 기뻐한다”는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육방예경(六方禮經)>에서 상방(上方)에 해당되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가르침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불교 승원을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위치시킨 것도 탁발은 물론 재가자의 방문과 보시를 가능케 하고 그들에게 법을 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초기교단의 이원구조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교단의 ‘출가-재가’의 유기적이고도 분업적인 이원구조적 특성상 출가자에게는 생산노동이 금지되었던 것이지, 부처님이 노동 자체를 거부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출가자는 무위도식을 하는 자도 아니고, 은둔자도 아니다. 결식에 의존해야 하는 생활 규칙상 은둔생활이란 아예 불가능한 것이었다. 부처님 당시의 불교 교단은 세간 및 세속과의 교섭을 단절한, 이른바 수도원적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처님이 즐겨 머문 영취산은 구왕사성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교 최초의 가람인 죽림정사 또한 신왕사성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영취산이나 죽림정사는 지리적으로 보아 결코 은둔생활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이러한 불교 승가의 사회적 유대 때문에, 불교 교단의 비구를 monks로 영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monks는 사회적 유대를 상실한 승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본래 종교적 은둔자를 뜻하는 monachus에서 파생된 monks는 훗날, 세상과 떨어져 생활하는 단체의 구성원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소승불교는 자리(自利)만을 추구하는 아라한을 목표로 한다’는 대승불교의 도식적인 비판도 적절치 못하다. 아라한과를 성취한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은 그들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비구들이여, 이제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는 붓다의 유명한 ‘전도의 선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붓다의 그 ‘전도의 선언’을 실천하였고, 그리하여 부처님 제자들의 노력에 의해 불교는 새로운 종교로서 당시 인도의 대중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출가는 현실도피가 아니다. 출가는 무명과 탐욕의 작은 집에서 지혜와 자비의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발걸음인 것이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 법회소식 NEWS

- 양력 8월 22일 (음력 7월 7일)부터 양력 8월 29일 (음력 7월 14일)까지 백중 (우란분절) 7일 간 선망부모, 일가친척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성대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불교의 5대 명절중 하나로,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효행의 날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된 우란분절,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정진하며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이날 신도님들과 인연있는 모든 영가들은 물론이고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7일기도 동참비는 \$50.00 (한국: 오만원)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우신분은 기도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했던 1600년 한국 불교사의 일 대 큰 사건, 그 행사는 바로 “세계 여성 불자 대회” 였습니다. 이 역사에 남을 큰 사건의 중심에는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똘똘뭉친 “불국회”가 있었습니다. 약 40여개국에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으신 불자들과 외국 스님들 그리고 한국 스님들 및 불자님들까지 모두 합쳐 매끼마다 천여명 이상의 식사를 담당한 불국회. 승가대학 식당에서 대회기간 중 총 21 끼를 준비했고, 비구니 회관에서는 안내를 담당했습니다.

세계 불자 여성 불자 대회에 참석한 불국회 봉사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주일간 상주한 공양 담당자: 이문자 (공양주 담당), 박계영, 김효례, 이금주

오은정 (남편되시는 법운 거사님께서 이번 대회 기록 사진을 무료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일주일간 심야에서 아침까지 공양 담당: 정혜주, 이향란, 정정순

하루씩 동참한 봉사자: 회장님 (아침 식사 2일), 회장님 친구 (아침 식사 1일)

한순옥 포교사의 5명, 관음사 자모회 1일 설 것이

은혜엄마, 서성례, 정웅희, 안명희, 철순언니, 조재휘 1일 봉사

이묘경 (그릇 셋팅), 선법장 (공양간); 2일 봉사

오도행, 왕영미 다각실 2일 봉사

최찬숙 (불국회 봉사자들이 덮을 이불 지원)

“세계 여성 불자 대회”에 참가자들이 드실 간식 즉 식혜 대중공양비 총 95만원은 “세계 여성 불자 대회” 본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 지혜륜 10만원, 지성화 5만원, 강철순 2만원, 정혜주 8만원, 이향란 5만원, 문수행 10만원, 이경주 6만 5천원, 이묘경 7만 5천원, 정노미 7만 5천원, 김효례 7만 5천원, 선법장 7만 5천원, 조계사 육법법등장 10만원, 조한준 5천원, 최상운 5천원, 조도주 7만 5천원 이상.

많이 힘이 들었지만 불국회는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전 회원들간의 결속과 친목은 물론이고 신심을 다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이웃들에게 봉사하자는 말이 오가고 있으니 조만간에 불국회 봉사단이 정식으로 발족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불국회가 개최하는 가을 봉사는 예년대로 양로원인 안양원에서 하는 김장 봉사가 있습니다. 김장비 동참이나 겨울 김장을 담그는 봉사 동참을 원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 앞으로 불국사의 또하나의 상징이 될 불국사 정문앞 정원에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불사 및 처마를 덧대 (Awning)는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

